

기술시장 자격제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Technology Market Experts

최상진**, 이덕기***, 박수억****
(Sang-Jin Choi, Deok-Ki Lee, Soo-Uk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조사결과 및 분석 |
| II. 조사방법의 일반적 고찰 및 범위 | IV. 결론 |

<Abstract>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market, as the domestic market grows, more professional technology analysts are needed and it became mor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qualification of those experts to cope with growing market. In this study,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 of those experts is described, qualification system is analyzed and more realistic suggestions on the system to activate the market and to encourage the experts will be introduced. The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the questionnaire sent to the person who works in related fields, such as industry, technology transfer center, universities, etc.

Key Words : valuation, technology transfer, qualification

주제어 :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자격

* 본 논문은 기술거래소에서 “기술거래사 제도 활용촉진 및 기술가치평가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 지원된 사업임을 밝힌다.

** 최상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공학박사, E-mail : sjinchoi@kier.re.kr

*** 이덕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기술경영학박사, E-mail : deokki@kier.re.kr

**** 박수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장/기술경제학박사, E-mail : supark@kier.re.kr

I. 서론

1. 개요

21세기 산업혁신은 새로운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경쟁의 확대와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기술의 수명주기 단축, 그리고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보편화는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Intel, IBM 등 선진 대기업들은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ES(미국 라이선싱협회)는 2003년 미국내 라이선싱 시장의 규모를 5천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 산업혁신의 새로운 추세는 건전한 기술시장의 구축과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술이전의 법적 위치를 확보하고 시행함으로써 기술의 거래와 사업화 확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시장은 아직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기술시장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거래를 관리하고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시장 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따라서 현행 법정자격인 기술거래사 제도와 민간자격인 기술가치 평가사제도를 개선·확충하여 기술시장 전문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 전문 인력의 전문성

을 제고하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시장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요와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해외 기술거래 전문자격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그리고 국내 유사 분야 전문자격 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의 기술시장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거래사, 기술평가사, 전문가 과정 교육생, 기술거래 관리자 또는 기술가치평가 업무수행자, 기술거래 관리자나 기술가치 평가서비스를 받는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2. 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은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함께 현행자격제도의 보완을 위한 개선연구 역시 이 시점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이전에는 법 제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한·미·일 3국의 법제 비교연구(1997)”에서는 기술이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기반연구와 함께 기술이전체제 발전을 위한 규정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법제정 이후 한국기술거래소 설립과 함께 관련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기술이전·거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업종별 기술가치평가 기본모델 구축 사업(2002)”은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첫째 기술·기업가치평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 둘째 기업·기술가치평가 기본모형의 구축에 관한 것, 셋째 기술·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업종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동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평가 및 가치평가제도를 국외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기술가치평가의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좀 더 세부적인 업종별 속성이 반영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책 대안으로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사업화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법의 개정에 따라 자산의 가치평가 전문인력, 가치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공인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연구(2003)”와 “기술담보시범사업 성공·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03)”가 수행된바 있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연구에서는 현행 R&D 지원체계를 ‘기술개발 중심’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중심의 양 축으로 전환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령 개선 안을 작성하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담보시범사업 성공·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에서는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및 기술가치평가투자연계제도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동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미친 성과와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및 기술가치평가투자연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II. 조사방법의 일반적 고찰 및 범위

1. 조사방법의 일반적 고찰

설문조사는 조사의 목적, 주제, 대상, 조사 기간, 비용 등에 따라 조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사방법에는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이 있으며, 데이터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온라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따라 표본 추출이나 질문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법들을 크게 나누어보면 대인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설문조사, 온라인(인터넷)조사로 나눌 수 있다. 대인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방법 가운데 가장,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은 조사방법이다. 그러나 이 조사 방법은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인력과 경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화조사는 조사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정해진 질문지의 내용을 묻고 응답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조사방법이다. 전화조사는 대인 면접조사보다는 상대적

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조사와 용이한 표본 추출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야 하고, 설문 문항이 10문항 내외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조사원의 질문 기술이 고도로 요구되고, 면접의 비 대면성에 따른 오차의 발생가능성, 조사 성공률 제한 등으로 인해 면접조사 보다는 조사의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우편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후, 설문지를 다시 우편으로 회신 받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조사 방법은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고, 조사결과에 신뢰도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조사자체의 목적보다는 특정 사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측면도 있다. 우편과 비슷한 방법으로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조사는 특정 사안의 질문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네티즌들의 투표를 유도하여 분석하거나 EMS(Electric Mailing System)를 이용하여 E-mail을 보내는 조사 방법이다. 이 조사 방법은 샘플의 증가에 따른 조사비용의 상승이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실시에 유리하다. 온라인 조사 유형의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Comley(1998)와 Batagelj et al(1998)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HTML에 기반한 조사는 사용자의 “DNS와 IP 주소, Browser, 운영체제, 응답자 출신 및 웹 주소, 설문 시작시간과 응답자의 E-mail도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여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표 1>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의 분류

종 류		내 용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방법	Plain E-mail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설문은 ASCII파일형태의 설문에 대한 응답을 재발송하는 방법이며 설문 레이아웃이 제한적이고, 응답자의 프로그램 장비의 문제와 자료 처리가 매우 힘들다.
	Disk by E-mail	전자우편에 파일을 첨부하는 형태로서, 응답자들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시켜 질문에 답하고 작성된 파일을 다시 발송한다. 설문의 혼합과 문항의 통제 등이 자유롭지만, 파일의 크기가 크다.
HTML에 기반한 설문조사방법	Plain HTML	설문지가 단일 페이지로 나오는 형태이다. 응답에게 전체 설문문항이 제시되기 때문에, 응답을 빠트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통계가 필요한 질문에는 부적당하며, 짧고 단순한 설문에 적당하다.
	CAWI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는 여러 개의 설문페이지가 나오는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설문의 회전, 혼합, 이동)로 모든 응답통제가 가능하여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다.
	Java 기반 웹 설문	Java와 Active X를 사용하여 서버와의 상호작용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하지만, 너무 느려 HTML형태와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온라인 Focus Group을 통한 설문조사방법	온라인 FGI는 공간적 제약이 없는 참여가 가능하고, “익명성(Anonymity)”을 통해 활동적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Solomon, 1995], 인터넷상에서 응답자들은 가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모니터에서 비춰지는 컨셉들이 개별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개념하에 비춰질지 불확실하다.[Greenbaum, 1995]	

있다. 또한 E-mail을 통한 방법은 E-mail 전용프로그램(Outlook, Netscape Mail, Eudora등)에서도 HTML을 지원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더욱 활발한 조사가 가능해 졌다. 온라인설문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HTML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설문제시 방식을 이용하는 조사보다 유리한 점이 많지만, 전체인구를 대표할 수 없는 온라인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온라인설문의 일반화에 상당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Weissbach, 1997; Eaton, 1997]. 그러나 온라인설문조사는 전통 설문조사방법과 차이를 가진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점[Berghele, 1996]과 특히 온라인사용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온라인설문조사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가 되고 있다[Batagelj et al, 1998]. 결론적으로 온라인설문조사에 관한 논쟁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나[Comley, 1998], 대중적인 조사도구로서의 사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Iyer,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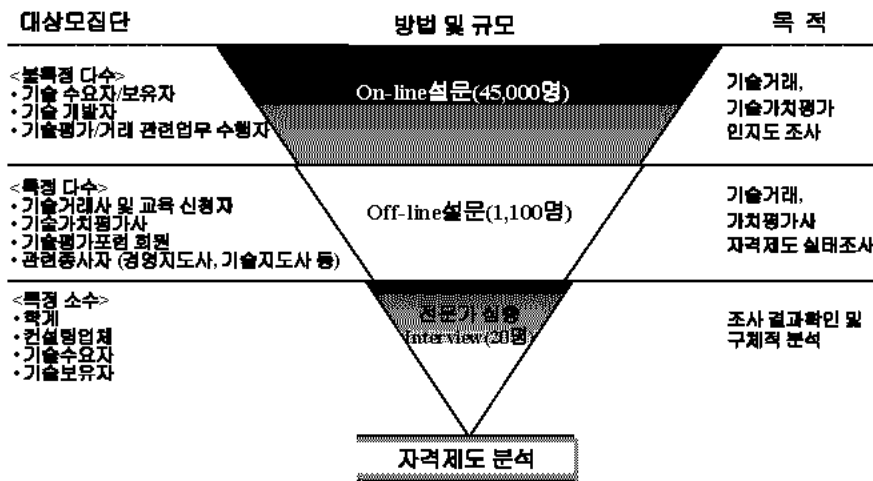
2. 조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조사방법으로는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조사는 우편조사와 전화조사 등을 조합하여 이용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는 대인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조합하여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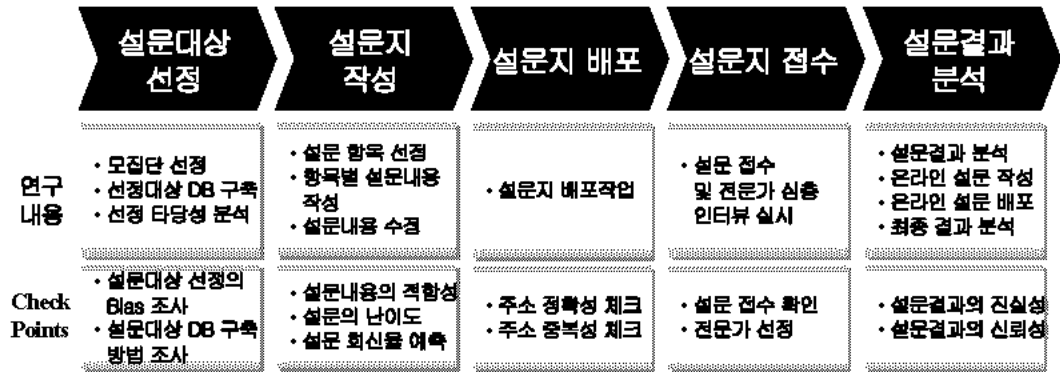
위의 설문조사의 이론적 고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시스템과 E-mail을 통한 온라인조사(불특정 다수 대상)와 우편·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조사(관련분야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 자 대상) 및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온라인 설문 응답자, 총 45,000명 오프라인 설문 응답자, 총 1,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가 인터뷰에는 총 20명(컨설팅업체(5개 업체), 학계(5개 대학), 산업계(5명), 기술보유자(5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대상 모집단은 기술 수요자/보유



<그림 1> 대상 모집단



<그림 2> 실태설문조사 절차

자, 기술개발자, 그리고 기술평가/거래 관련 업무수행자로 구성되었고 오프라인 설문의 대상 모집단은 온라인 설문의 경우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기술거래/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거래사 및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잠재 자격 수요자로서 기술거래사 교육신청자, 기술평가포럼 회원, 관련종사자(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인터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수행하였으며 실제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에 따른 검증 및 평가를 하였다.

실태설문조사는 먼저 모집단 구성, 설문지 작성, 설문지 배포, 설문지 접수, 설문지 결과 분석 및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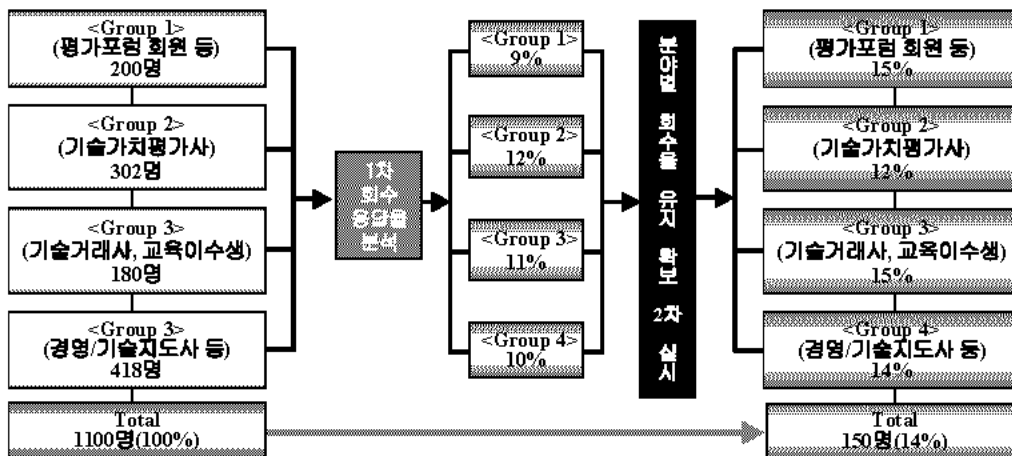
온라인 설문은 총 10문항으로 mail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되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질문(1문항), 기술거래에 관한 질문(5문항),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질문(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내용도 온라인 설문과는 달리 총 88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이라기보다는 기존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서의 형태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컨설팅업체, 학계, 산업계, 기술보유자들에 걸쳐서 오프라인을 통해 나간 설문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질문이 주어졌으며,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서 나온 응답자들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설문결과에 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배포 및 접수는 10일간에 오프라인 설문 접수하였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역시 10일간 방문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기술거래소 온라인 mail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의 문항 수나 설문내용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심도 깊은 질문들이기 때문에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먼저 1차 접수된 설문결과들에 대한 각 분야별 회수비율을 계산하고,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체적인 회수율을 동 비율로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 독려 전화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전화로 설문 응답을 독려하였다. 이런 방법을 2차, 3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분야별 응답비율을 안정적으로 맞출

<표 2> 설문조사표 문항 구성

대분류	중분류
기술거래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항 (4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9 문항 ○ 기술거래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9 문항 ○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 : 6 문항 ○ 기술거래사 취득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문항 ○ 기술거래사 효율적 운용에 대한 사항 : 6 문항 ○ 기타(유사 자격제도와 차이) : 7 문항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항 (48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8 문항 ○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6 문항 ○ 기술가치평가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 : 10 문항 ○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 6 문항 ○ 기술가치평가사 법정 자격화에 관한 사항 : 5 문항 ○ 기술가치평가사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6 문항 ○ 기타(유사 자격제도와 차이) : 7 문항



<그림 3> 온라인 설문 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수 있었다. 고른 회수율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설문지 결과 분석은 먼저 오프라인 설문결과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자격제도 인지도에 관한 설문인 온라인 설문분석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전반적인 경향 파악과 함께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응답 현황분석

각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온라인 설문에서는 921명 응답하고 오프라인 설문에는 150명이 응답하였

<표 3> 온라인 설문응답자 분포

구분	기술개발자	기술거래업무 관련수행	기술평가업무 관련수행	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	기타
응답율(%)(복수응답)	47	30	28	41	21	12

<표 4> 오프라인 설문응답자 분포

구분	기술거래업무	기술평가업무	거래/평가업무	보유업무
응답율(%)(복수응답)	10	12	27	51

<표 5> 기술거래사 인지도에 대한 응답비율

구분	모르겠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응답율(%)	33	43	43

<표 6> 기술거래 의향에 대한 응답 비율

구분	전혀없다	없다	잘모르겠다	있다	반드시 있다
응답율(%)	10	12	27	51	

다. 온라인 응답자 중에 기술개발자와 기술보유자가 가장 많은 88%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기술거래 업무관련 수행자(30%), 기술평가업무관련 수행자(28%)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조사에서는 비록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분야별로 고른 분포의 응답분포를 유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100명의 설문대상자 중에 14%인 1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 분포는 관련 업무를 수행자가 51%를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거래/평가업무 수행자(27%), 가치평가 업무 수행(12%), 기술거래업무 수행(10%)순으로 나타났다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온라인 설문 결과 분석

(1) 기술거래 인지도 분석

총 10개의 문항 중 5 문항이 기술거래에 관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약 98%가 기술거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술거래사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약 67%가 기술거래사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33%는 아직까지 기술거래사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래업무에 있어서는 대체로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의 관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7> 기술거래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응답비율

구분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중재	행정적 업무	법률적 업무	거래관련 자문
응답율(%)	25	18	17	20	20

으며 이에 따른 비용 지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술거래사의 역할은 우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연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 결과, 기술거래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이 원하는 기술거래사의 역할은 기술 수요자와 기술공급자의 연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들은 기술거래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2) 기술가치평가인지도 분석 결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기술거래와는 달리, 대다수 응답자가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제도의 법규적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전문자격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과 자격운영 기관의 자체적인 홍보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업무에 있어서는 응답자 다수가 기술거래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가치평가사 자격보유자에 대한 기술평가의뢰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도 기술거래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치평가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도 비교적 뚜렷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실적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지식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이공계 기술 분야별 전공자에 대한 가치평가 전문교육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기술평가의 인지도에 대한 응답 비율

구분	모르겠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응답율(%)	55	34	11

<표 9> 기술평가 의뢰에 대한 응답 비율

구분	전혀없다	없다	잘모르겠다	있다	반드시 있다
응답율(%)	3	11	27	53	6

<표 10>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에 대한 응답 비율

구분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소속	다양한 평가실적	평가방법에 대한 풍부한지식	대상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
응답율(%)	27	15	21	37

2) 오프라인 설문 결과 분석

(1)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분석

□ 기술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기술거래 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거래실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84%로 아직 기술시장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기술수요자 및 기술공급자의 기술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급·수요 기술내용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견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거래 관련 정보의 체계화,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 개발, 그리고 기술시장의 조성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기술거래 전문 인력의 공급확대나 전문성제고가 기술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였다.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는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26%가 국가지정 기술거래 기관, 24%가 민간기업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기술거래 업무를 주도하려면 국가지정 기술거래 기관이 공신력, 객관성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거래 전문 인력이나 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기술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 없이는 기술거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거래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자에게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 후,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에, 기술거래 실적이 더 좋아졌다는 대답은 거의 없는 반면에 32%가 기술거래업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과반수인 50%가 '인지도 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기술거래사 시험 관심도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4%가 자격이 된다면 기술거래사 자격에 응시하겠다고 답했으며, 현재 미취득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거래사 취득에 대한 이점은 기술거래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 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거래사 취득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의 응답은 45%가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 32%가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답해, 현행 기술거래사 자격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분석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 요건 중 "최근 3년 동

안 3회 이상”의 기술거래실적이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 기술거래사 취득 경력 및 실적 기준에 있어 응답자의 대다수가 기술거래사 경력과 실적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기준과 실적기준이 어떻게 수정되길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이, 자격요건과 실무와 관계가 명확치 않다는(예를 들면, 관련 분야 학위 후 몇 년)지적(37%)과 경력 기간의 단축(30%)을 요구했으며, 기술실적에 있어서는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기준을 삭제하거나, 관련 업무실적(기술평가, 기술이전관련 컨설팅 등)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술거래사 자격취득 시 느꼈던 행정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거래사들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지방 기술거래소 개소, 사전 교육제도 활성화,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을 단순히 경력요건과 실적기준으로 획일화하지 말고, 실제 신청자에 대한 방문 또는 면담을 통해서 신청자의 업무능력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기술거래사 취득 활성화에 대한 분석

기술거래사 제도가 타 자격제도와 비교하여 활동과 업무성과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의견이 ①취득 이후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으며, ②시장이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할 필요가 없고, ③자격취득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격취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사항에 대하여는 ①기술거래업무의 기술거래사 전담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② 기술거래 업무수행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기존에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기술거래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업무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활성화를 꾀하기가 힘들고 아직 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취득에 대한 별 다른 장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자격요건이나 실적기준을 완화시켜 기술거래사 자격대상을 늘리는 것도 자격취득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기술거래사 자격요건의 필요성과 자질에 대한 분석

원활한 기술거래업무를 위해서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기술거래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기술거래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기술거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주로 법학, 경제학, 경영학)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술거래사의 등록에 따른 실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국가 자격화하여 기술거래 업무를 전담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술거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거래사에 대한 정기 교육 등 자격취득 후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의 업무 구분에 대한 분석

기술거래사 업무와 기술가치평가사의 업무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술거래사가 기술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술평가업무가 기술거래업무에 속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 분석

□ 기술가치평가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현행 국내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과 활용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①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이 부족하고, ② 체계적인 정책체계가 결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②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구축, ③ 국가공인기술가치평가사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향후 기술가치평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하여 자격제도의 국가 공인화와 기술가치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확보를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보고 있다.

□ 기술가치평가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현재의 기술가치평가 실적은 현재 미흡한 편이고, 평가주체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가지정 기관과 민간기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기술가치평가 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불만족 이유는 주로 ① 평가

대상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방법론의 사용, ② 기술가치평가사의 미흡한 자질, ③ 평가결과의 기술거래·이전으로의 연계 미흡, ④ 평가기관의 서비스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의 정립, 기술가치평가사의 전문성 확보, 기술가치평가사와 기술거래사의 업무협조, 평가기관의 경쟁여건 조성 등을 해결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기술가치평가 의뢰의 목적은 주로 ① 기술거래, ② 산업 재산권 평가, ③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등이 제시되었다.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점으로는 평가시스템의 표준화와 대상기술에 적합한 평가방법론의 개발을 지적하고 있다.

□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먼저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사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나타났다.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주된 이유는 평가사의 가치 증대에 대한 기대와 원활한 기술가치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응답자가 자격 취득 후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 취득 후에도 기술가치평가 실적과 인지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자격보유자의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직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기술가치평가사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취득을 하게 되면 평가 의뢰자들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으며 실제 자격취득한 사람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보유자들

에 자격취득 과정에서의 기대가 자격 취득 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대한 분석

많은 응답자들이 기술가치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조건 및 시험과목 선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일부는 시험문제의 내용과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며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① 우선 국가자격 공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② 유사 자격을 인정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을 보장하며, ③ 평가대상기술에 맞는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④ 자격 취득 전 교육제도 개선과 취득 후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기술가치평가사 법정 자격화에 대한 분석

현재 기술가치평가사제도는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등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국가공인으로 인증기관의 제도적인 변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변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자격고시제도로의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 활용체계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는 경우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평가결과의 신뢰도 증가라고 응답하여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존의 가치평가사들의 처우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응답자

들이 일정 양성교육 실시 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밝혔다.

□ 기술가치평가사 효율적 운용에 대한 분석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원활한 기술가치평가업무를 위해서 현재의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요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업무 수행능력이 기술가치평가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술거래사의 경우에서 제시되었던 항목들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하고, 기술가치평가사의 업무라고 생각되는 항목 선택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술가치평가사가 기술거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해,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기술가치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 후 정기적인 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사전 자격요건 또는 일정교육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지금 현재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보완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활용이 저조한 기술가치평가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정책업무에 기술가치평가사를 적극 활용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기술가치평가사에 전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술가치평가사와 기술거래사의 차이에 대한 분석

기술가치평가사가 기술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객관적 기술가치평가시스템과 국가의 정책적 배려라고 응답하여 국

내에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가치평가사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공인화, 시장 활성화, 기술거래사와의 통합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기술가치평가사 유사관련자격 취득자와 미취득자와의 비교분석

총 150명의 응답자중 37명은 기술가치평가 유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113명은 미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사자격증이라 함은, 기술신보나 다른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하는 자격증 및 해외유사자격증을 의미하며, 그 비율은 아주 적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자격증 소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결과에 어느 정도의 편향(bias)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가치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항목 중에서, 기술가치평가유사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미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설문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설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교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기술가치평가 유사관련 자격증 취득자의 비율이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설문결과와 편향(bias)이 예상되었으나, 미취득자의 경우와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보여, 기득권자의 의견 편향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현재 평가시장의 미활성화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자격취득자는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자격취득자들은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을 이용하여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미취득자들이 취득자들보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 취득자들은 기술가치평가사가 민간자격 국가공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아직 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이 되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부족이 시장활성화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응답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및 활용도 미흡에 대한 의견 (취득자)

구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족	평가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 결여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	객관성, 공정성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부족	기타
응답율(%)	22	45	0	33	0

<표 13>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및 활용도 미흡에 대한 의견(미취득자)

구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족	평가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 결여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	객관성, 공정성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부족	기타
응답율(%)	29	23	11	37	0

<표 14> 기술가치평가업무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취득자)

구분	개인사무소	관련협회	금융기관	민간기업	출연 연구기관	공공 기관	국가지정 가치평가기관	기타
응답율(%)	4	35	4	9	4	9	22	13

<표 15> 기술가치평가업무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미취득자)

구분	개인사무소	관련협회	금융기관	민간기업	출연 연구기관	공공 기관	국가지정 가치평가기관	기타
응답율(%)	12	22	5	9	8	14	21	6

<표 16> 기술가치평가 자격취득에 관한 의견(취득자)

구분	없다	시험문제의 내용과 평가방식의 문제	응시자격요건이 낮음	시험과목과 배점의 문제	시험응시자격요 건이 엄격	기타
응답율(%)	56	22	11	0	11	0

<표 17> 기술가치평가 자격취득에 관한 의견 (미취득자)

구분	없다	시험문제의 내용과 평가방식의 문제	응시자격요건이 낮음	시험과목과 배점의 문제	시험응시자격요 건이 엄격	기타
응답율(%)	27	23	7	11	23	9

<표 18> 인증기관의 제도적 변환에 대한 의견 (취득자)

구분	국가자격	민간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기타
응답율(%)	21	74	0	5

<표 19> 인증기관의 제도적 변환에 대한 의견 (미취득자)

구분	국가자격	민간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기타
응답율(%)	61	37	2	0

<표 20> 기술가치평가사 활용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취득자)

구분	시장에 맡기되 평가기법개발 평가수요 확충 등 관련시장을 확대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기술가치평가사에 전달업무를 부여 한다	업종별분야별 기술가치평가기관 을 지정하여 육성 한다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정책업무에 기술가치평가사의 활용을 확대 한다	기타
응답율(%)	15	37	15	33	0

<표 21> 기술가치평가사 활용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미취득자)

구분	시장에 맡기되 평가기법개발 평가수요 확충 등 관련시장을 육성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기술가치평가사에 전달업무를 부여 한다	업종별 분야별 기술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육성 한다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정책업무에 기술가치평가사의 활용을 확대 한다	기타
응답율(%)	16	21	24	38	1

3) 전문가 심층 Interview 결과 분석

(1) 기술거래사에 대한 분석

기술거래사 자격요건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박사학위자의 기술거래 관리능력이 실무위주 기술거래 전문가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소정의 교육 후에 시험을 거친 다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기술거래사 실적요건에 대해서는 기술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거래 실적 기준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술거래사 취득 후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향상되었지만 기술거래 실적이나 영업이익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전문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이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하였다.

(2) 기술가치평가사에 대한 분석

기술가치평가사의 경우는 자격요건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가치평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이며 국가차원에서 하나의 인증기준(평가준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가치평가사 자격

중 취득 후에 달라진 점은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에 대한 의문지 제기되어, 신뢰성 있는 평가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가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술거래 시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신뢰도가 제고되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기술수요자 입장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분석 및 기타

현실적으로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 경우 기술거래사는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기회를 탐색하여야 하며 자격제도에 대해서도 기술거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대신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게는 폭넓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시험제도 등을 도입해서 관련종사자에게 자격취득 기회를 넓힌 다음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격자들의 자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기

술거래사나 기술가치평가사 자격보유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기술거래에 대한 교육이 여러 기관(발명진흥회,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이 통일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기술거래업무나 기술가치평가업무를 하는 경우에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의 의무적 고용 등의 방안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기술가치평가는 부동산이나 커뮤닉의 감정평가와 달라 매우 가변성(volatility)이 큰 업무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장 기술가치평가사를 국가 자격화하여 전문자격에 대한 프리미엄·지대(rent)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복수의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각 자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쟁시스템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 자격화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거래관리업무나 기술가치평가업무를 수행방법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격보유자의 전문성이 미국 등 선진국의 유사 민간자격 보유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기업·기술 보다 객관성이나 정형성이 높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인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가 국제 거래의 경우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자격화 여부보다 자격취득과 관리 과정에서 자격보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

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기술거래 자격제도가 국가 또는 민간인 중기관이 어느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각 자격의 직업능력표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하고 기술거래 자격제도가 기술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기술시장발전에 대한 기여하는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 온라인 조사의 경우 기술거래소 mailing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응답자들이 다소 편향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조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술거래사 및 기술가치평가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오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구대상 자격제도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불특정 다수라 할지라도 관련자들의 설문결과가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분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술거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격취득에도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거래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기술거래사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기술거래사의 역할은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연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술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행 기술거래사 자격요건과 실적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좀 더 실무와 연관된 자격요건과 현실적인 실적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술거래를 의뢰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술거래사에 대한 대다수의 불만들은 신뢰도 또는 자질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술거래 취득 후의 교육프로그램과 정기보수 교육 등 자격 보유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관리가 강화되어 기술거래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거래사의 등록에 있어서도 기술거래실적,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실적 및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해 지원자의 자질, 잠재력 등을 파악하여 기술거래사 자격 수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기술거래사의 육성을 견인하고 이에 따라 기술거래시장 활성화가 앞당겨져 자연스럽게 기술거래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기술수요자 및 기술공급

자들이 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기술거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진국형태의 기술시장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대안들을 제시하여 보면 거래사에 대해 인센티브나 보상(reward) 제도를 도입, 기술거래평가기관에 대한 기술거래사의 의무보유요건을 부과, 경력요건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으로 등록실익 재고 및 자격요건 합리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의 효과로 현장에서 기술거래사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격보유자에게 취업기회제공, 업무 수요증가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기술거래 인력의 공급확대를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기술거래사의 공식적, 배타적 업무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거래 담당 인력시장에 인위적인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을 설치하여 배타적 업무영역의 인정을 위한 자격시험 등 국가 자격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안은 자격보유 인력의 공급을 인위적 방법으로 조절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제도 분야

기술가치평가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사자격에 대한 인식이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기술거래사와 마찬가지로 기술가치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에도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사의 평가결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의 정립과 기술분야별 특수성에 입각하면서도 표준화된 평가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은 평가실적이 아니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평가업무 수행능력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자격취득 전 양성교육과 자격취득 후 정기적 보수교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격관리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술가치평가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많은 민간기관에서 평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및 육성을 통해서 정부가 공신력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기술가치평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국가 공인 같은 인증기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의뢰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면 기술가치평가시장은 활기를 띠게 되고, 이에 따라 전문성과 자질을 동시에 갖춘 기술가치평가사의 요구가 생기게 되어 기술가치평가시장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대안들을 제시하

여 보면 선진국의 자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사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응시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보수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민간자격체제를 유지하되 시험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법규적 근거 마련으로 민간자격의 공신력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전문심의기관을 통한 정부공인 자격으로 제도화하는 방안과 기술가치평가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들의 효과로는 첫째로 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고 둘째로 자격취득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되어진 방안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향후 최적대안의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ppraisal Foundation(2000), *Uniform Standards for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2000*.
- Arora A. , A. Fosfuri & A. Gambardella, "Markets for Technology : The Economics of Innovation and Corporate Strategy", London : *The MIT Press*, 2001
- Batagelj, Z. et al., "Who are Nonrespondents in Web Surveys?," *9th international workshop on household survey nonresponse, Bled*, 1998. 9.
- Berghel, H., "Cyberautica cybercensus," 1996.
- Comley, P., "The Use of the Internet as a data collection

- Method." *ESOMAR / EMAC Symposium*, November, 1996.
- Comly, P., "On-line Research, Some options, some problem, some case studies," *ASC Conference*, 1998
- Greenbaum, T., "Focus Groups on the Internet : An Interesting Idea but not a Good One," *Quirks Articles*, 1995.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 (2000),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2000.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2000), NACVA Professional Standards 2000.*
- Smith, Gordon V. & Russell L. Parr,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Second Ed.*, John Wiley & Son, Inc., 1994.
- Study on E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Security,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1994.*
- 설성수, 「기술·기업가치 평가기준의 철학과 구조」, 기술혁신학회지 제4권 제12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01.7
- 양동우, 「사전 기술평가와 사후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가치평가전문가그룹 포럼발표, 2002.
- 최규봉, 「2002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과」,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3.
- 한국기술거래소, 업종별 기술가치평가 기본모델 구축 사업, 2002.
-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기술·기업가치 평가기준, 2000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한.미.일 3국의 법제 비교 연구, 1997